

사랑하는 밀알두레 가족 여러분!

7,8월 신교장의 러브레터 주제는 초등과정의 ‘나의 작은 박물관’ 일명 ‘나작박’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나작박’ 담당 최서연 선생님과 ‘나의 작은 박물관’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나작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밀알두레학교 초등과정에는 해마다 특별한 박물관이 열립니다. 귀한 유물이나 유명한 미술품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고 궁금해 하는 것이 전시되는 ‘나의 작은 박물관’, ‘나작박’입니다. 아이들은 방학 동안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관찰하고 탐구한 뒤 친구와 동생들에게 발표합니다.

신 교장: 선생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발표가 있나요?

최서연 선생님: 오리를 좋아한 아이가 유정란을 구해 직접 부화시키고 오랫동안 키운 뒤, 성장 과정과 함께 실제 오리를 학교에 데려와 발표했어요. 그 관심은 이후 동물과 생명,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셸러드 채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달팽이를 키운 아이도 기억나요. 어떤 먹이를 좋아하고 얼마나 먹는지를 어머니와 함께 관찰해 발표했지요. 평범한 일상에서 만난 작은 생명을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의 깊은 배움이 된 것입니다.

동물이나 과학만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글과 그림으로 동화를 만든 아이, 그림 그리는 방법을 동생들에게 가르쳐 준 아이, 좋아하는 축구선수들의 나라·소속 팀·득점 기록을 표로 비교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생각과 경험, 상상력과 재능이 모두 박물관의 전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신 교장: 발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최서연 선생님: 동생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먼저 발표해요. 교사는 목소리 크기, PPT의 글자 수, 설명 방법 등을 지도하고 친구들도 솔직한 반응을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내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동생들이 ‘부화’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에서 깨어났어”라고 바꾸어 설명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계획하고 구성하는 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힘,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 교장: 나작박의 가장 큰 교육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최서연 선생님: 저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수용받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친구가 발표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뭐야?”, “이상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야기를 들어볼게”라고 받아들여 줍니다. 1학년 때부터 발표자와 청중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관심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아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존중받을 수 있구나”, “나에게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이 있구나”라는 자기 긍정을 경험합니다.

나작박은 초등과정 동안 계속됩니다. 해마다 선택한 주제는 한 아이의 ‘관심의 성장 기록’이 됩니다. 아이는 이를 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며, 어떤 일을 오래 탐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자신의 진로와 소명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를 같은 길로 데려가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나의 작은 박물관’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만든 작은 전시회이고 작은 발표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관심과 다름을 귀하게 여기는 밀알두레학교의 교육문화를 보여 주는 너무나 큰 박물관입니다. 이 보다 더 큰 박물관이 없을만큼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내가 발견한 기쁨을 너와 나누고 싶어.”
“그렇구나. 너는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야기를 들려줘.”

2026년 8월 31일 밀알두레학교 심부름꾼 신기원